

4년제 대학생의 취업목표설정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윤중*

¹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Employment Goal Setting to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Kim Youn Joong^{1*}

¹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있어 취업목표설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어떠한 취업준비행동이 취업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중 '2011GOMS1'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취업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준비행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준비행동으로는 경력개발프로그램 중 직장체험프로그램이 정(+)적인 영향을, 진로 및 취업교과목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연구를 통해 목표설정유무는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목표설정이 취업준비행동을 유발하지만 이것이 곧 목표달성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체계적인 취업교과목 운영, 직장체험의 기회 확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ssu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influence of effort that university students putting and employment goal setting regarding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which behavior affects to the employment goal achievement. This research could surely find that it is positive to employment goal setting. But employment goal setting is not enough to get a actual job. So we should manage job counseling program, and methodical subjects which is directly connected to employment. And also we have to enlarg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actual job to help graduate students to get a job.

Keywords : employment goal setting,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goal setting,

1. 서론

대학생 시기의 취업준비는 졸업 후 취업성공과 직결되며 성인기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시기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中等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받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동기부족, 우수부단 등으로 진로결정 및 준

비를 미루고 있다가 뒤늦게 취업준비를 하게 되면서 휴학, 졸업유예, 취업재수 등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 또한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대학생들은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은 물론 가정이나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2]. 취업목표의 상실은 '묻지마 취업'과 같은 비계획적인 취업으로 이어져 취업 후에도 일에 대한 즐거움을 찾지 못해 잦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원인

*Corresponding Author : Kim Youn Joong (Kyonggi Univ.)

Tel: +82-10-2005-9934 email: 13grida@naver.com

Received July 28, 2015

Accepted November 6, 2015

Revised (1st September 4, 2015, 2nd September 8, 2015 3th September 14, 2015)

Published November 30, 2015

이 되고 있으며[3]. 기업의 입장에서든 인력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대학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확실적인 취업준비에서 벗어나 대학생활에 걸쳐 적성과 흥미, 일자리 정보, 구직활동, 개인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평생 직업생활 로드맵을 그리고 직업 환경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4].

직업의 획득, 즉 취업의 성취는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5]. 목표는 동기의 기초가 되고 행동의 지표로서 인간 활동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수행에 영향을 준다[6].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일에 대한 집중도를 유지하고 구체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7].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재학시절부터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업목표설정이 중요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취업목표의 수립이 취업준비활동과 취업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활동과 직업 획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 취업목표설정을 선정하여 취업목표 설정이 취업준비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취업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준비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1 목표설정

Ford(1992)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가지 동기이론을 통합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에서 체계화한 동기체계이론을 통해 인간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건설적 힘을 가진 유기체로 간주하고 발달적 관점에서 인간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9][10]. 인간의 심리적 과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들이 있으며 Ford는 이를 목표, 개인적인 신념, 정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동

기요인인 목표는 개인의 조직화된 행동유형을 얻고자 하는 결과와 일치 않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행동을 취하거나 조정하기 때문이다. 즉, 목표는 개인이 주의를 집중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고 결과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동기체계에 기여하며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Locke(1968)는 동기 이론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목표설정이론을 통해 목표가 개인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의 기초가 되고 인간 행동을 직접적으로 조절한다고 하였다[6]. 즉,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가 집중력과 방향성을 결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목표설정이론에서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어려울수록 ‘잘하자’, ‘최선을 다하자’와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보다 수행의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목표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영학과 교육학 등에서 조직성과, 직무몰입, 학업성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로 이뤄져 왔다. 대학생의 학업성취 및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보다 학습시간이 더 길고 학업성적이 높으며, 수행결과와 양과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정서도 높았다[11][12]. 또한 목표의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자기조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취업목표를 설정한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취업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준비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1.2 취업준비행동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대학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를 말한다[14]. 또한 취업준비행동은 직업탐색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며 진로준비행동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면한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8].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수집, 자격증취득, 인턴체험 등의 예비적 취업준비행동과 입사지원, 면접, 시험 등을 포함한 본격적 취업행

동이 포함된다[14].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변인으로는 직업탐색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진로결정수준 등이 있는데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및 직업흥미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15]. 그리고 직업가치관,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등도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선택 동기 중 적성, 흥미, 재능을 고려한 개인적 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16][17]. 또한 취업준비행동은 첫 일자리 만족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8]. 취업목표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연구로는 2006년 GOMS를 활용한 연구가 있는데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에 설정하지 않은 경우보다 일자리 탐색경험, 취업지원 횟수는 많은 반면 면접지원 횟수는 적게 나타났으며 학원 수강(사교육, 취업과외) 비율은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높았다[18].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 중에서도 최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마다 강화하고 있는 경력개발지원프로그램과 토익, 인턴제 참여 여부를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중 2011GOMS1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조사대상자 중 교육대와 전문대를 제외한 4년제 대졸 청년층 12,48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예비적 준비행동 변인으로는 경력개발 지원프로그램의 참여여부, 토익점수, 인턴제 참여여부를 선정하였고, 본격적 준비행동으로는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 및 면접을 본 횟수 등을 선정하였다.

2.2.2 연구문제

개인의 취업목표설정이 취업준비행동 및 취업목표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고려하였다.

첫째, 취업목표설정 유무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취업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준비행동은 무엇인가?

2.3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졸업 전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1학년에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비율도 높아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8]. 하지만 4학년에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비율도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직업, 직장 취업목표를 이룬 비율도 남학생에 비해 낮았다. 스스로 평가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일자리 부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졸업 전 취업목표설정 비율은 교육>의약>사회>자연>인문, 공학>예체능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의학, 예체능 계열 전공자들이 일자리의 부족을 실패이유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학년에 취업목표를 설정한 비율이 높은 계열과 일치했다.

Table 1. Cross table. Gender * whether the employment goals set

		sex		Pearson chi-square
		Male	Female	
Whether employment goal set up before graduation	Yes	56.0%	58.0%	5.327 **
	No	44.0%	42.0%	
When you set your goals (grade)	1	15.2%	18.6%	28.949 **
	2	11.4%	10.0%	
	3	31.6%	27.2%	
	4	41.9%	44.2%	
Employment goal achievement	Yes	42.8%	39.1%	9.904 **
	No	57.2%	60.9%	
Why did not achieve the goal	Setting too high a target	8.9%	8.0%	34.470 **
	The lack of information	7.9%	6.8%	
	The lack of economic free	6.2%	4.8%	
	Loss goals	11.3%	12.3%	
	The lack of preparation time	23.8%	23.3%	
	The lack of qualifications	17.9%	17.3%	
	Lack of school support	1.3%	1.2%	
	Lack of jobs	11.7%	16.2%	
The others	11.1%	10.1%		

**p<.001, *p<.01, *p<.05

2.3.1 취업목표설정 유무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

2.3.1.1 경력개발프로그램

가장 많이 참여한 경력개발지원프로그램은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가 49.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진로 취업관련 교과목으로 전체 대상자의 44.5%가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지원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직장체험 프로그램(84.5%)과 면접 기술과 이력서 작성프로그램(83.9%)이었다.

Table 2. Cross-table. Career development support program participation & helpful * whether the employment targets set

			Whether employment goal set up before graduation		Total	Pearson chi-square
			yes	no		
Career, whether employment-related subjects participation	Y	N	3466	2086	5552	126.678 **
	E	%	48.8%	38.7%		
Career, job-related courses helpful Whether	Y	N	2623	1445	4068	27.293 **
	E	%	75.7%	69.3%		
Work experience programs (Including interns) whether participation	Y	N	1874	1078	2952	69.262 **
	E	%	26.4%	20.0%		
Work experience programs (Including interns) helpful Whether	Y	N	1633	860	2493	28.250 **
	E	%	87.1%	79.8%		
vocational aptitude test psychological test whether participation	Y	N	3752	2400	6152	84.548 **
	E	%	52.9%	44.6%		
vocational aptitude test psychological tests helpful Whether	Y	N	2673	1621	4294	9.507 **
	E	%	71.2%	67.5%		
Career counseling programs related to individual and collective participation if	Y	N	1974	1227	3201	40.685 **
	E	%	27.8%	22.8%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related to career assistance program, helpful whether	Y	N	1559	911	2470	9.609 **
	E	%	79.0%	74.2%		
Interview skills and resume writing program if Participation	Y	N	2589	1531	4120	89.845 **
	E	%	36.5%	28.4%		
Interview skills and resume writing assistance program helpful Whether	Y	N	2227	1228	3455	23.983 **
	E	%	86.0%	80.2%		
Employment Status camp participation	Y	N	1058	615	1673	32.121 **
	E	%	14.9%	11.4%		
Employment Status camp helpful Whether	Y	N	848	486	1334	0.306
	E	%	80.2%	79.0%		

***p<.001, **p<.01

2.3.1.2 토익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토익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OEIC score difference analysis of whether the employment goals set

	Whether employment goal set up before graduation	N	M	SD	t
TOEIC	Yes	3012	769.072	149.397	2.935 **
	No	1949	756.257	151.480	

**p<.01

2.3.1.3 인턴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보다 인턴제 참여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4. Inteon participation experience * whether the employment goals set

			Whether employment goal set up before graduation		Total	Pearson chi-square
			yes	no		
Inteon whether participation experience	Y	N	1429	700	2129	110.307 ***
	E	%	20.1%	13.0%		

***p<.001

2.3.1.4 일자리지원 및 면접횟수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자리 지원 횟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반면 면접을 본 횟수에는 차이가 없게 나타나 서류통과가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Table 5. Difference Analysis of the number of jobs apply and interviews * whether the employment goals set

	Whether employment goal set up before graduation	N	M	SD	t
Number of job Apply	YES	4477	14.97	24.368	2.277 *
	NO	2338	13.58	23.580	
Number of interviews	YES	4477	3.99	5.052	.488
	NO	2338	3.92	6.575	

*p<.05

2.3.2 취업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준비 행동

진로·취업교과목, 직장체험, 토익,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가 직업목표 및 직장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Employment target achievement factor analysis

Factor Division		Model 2		Model 3	
		B	Exp(B)	B	Exp(B)
Sex	Male	.143 *	1.154	.150 *	1.162
Major (Dummy= social science)	Humanity	.007	1.007	-.001	.999
	Education	.583 ***	1.791	.573 ***	1.774
	Technology	.351 ***	1.420	.356 ***	1.427
	Natural Science	-.033	.968	-.029	.972
	Medicine	1.274 ***	3.577	1.233 ***	3.431
Art&Physical	.028	1.029	.009	1.009	
School locality (Dummy=NonCapital Region)	Capital Region	.204 **	1.226	.206 **	1.229
Target job type (Dummy= The others)	Domestic and foreign private companies	.976 ***	2.653	.984 ***	2.675
Father's Education Level(Dummy= More than graduating from university)	High school/ College	-.187 *	.829	-.184 *	.832
	Middle school level below	-.107	.899	-.098	.907
Mother's Education Level(Dummy= More than graduating from university)	High school/ College	.088	1.092	.104	1.109
	Middle school level below	.007	1.007	.018	1.018
University of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parents at the time of admission to(Dummy=More than 5 million won)	Less than ₩2,000,000	-.159	.853	-.168	.846
	₩2,000,000-3,000,000	-.165	.848	-.162	.850
	₩3,000,000-4,000,000	-.153	.858	-.163	.850
	₩4,000,000-5,000,000	-.073	.930	-.069	.933
Grade set goals (Dummy=4)	1	.124	1.132	.103	1.108
	2	-.112	.894	-.122	.885
	3	-.045	.956	-.052	.950
Job Information acquisition route (Dummy=School)	Social networking	.208	1.231	.214	1.239
	Internet	-.010	.990	.006	1.006
	The others	.233	1.262	.230	1.258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areer, whether employment-related subjects			-.253 **	.776
	Work experience programs			.273 **	1.314
	vocational aptitude test			-.021	.979
	psychological test				
	Campus job fairs			-.082	.921
	Career counseling programs related to individual and collective			.113	1.120
	Interview skills and resume writing assistance program			.035	1.036
	Employment Status camp			-.025	.975
Intern			-.077	.926	
-2log likelihood		5432.17		5409.239	
x ₂		13.269		10.396	

***p<.001, **p<.01, *p<.05

3. 결론

취업목표설정은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였다[8][19]. 그리고 본 연구결과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하지만 자신과 채용시장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취업목표설정에 있어 학생들 중 일부는 직장목표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학년에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 직장목표 설정 비율이 높았다. 이는 취업을 위한 임기응변적이고 편향된 선택이거나 아직도 자신의 적성이나 직무내용보다는 안정성이나 직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소신은 없이 선호도가 높은 직장을 중심으로 무차별적 지원이 이뤄질 확률이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취업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턴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를 한 학생들이 오히려 참여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취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한 인턴제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청년인턴제, 해외인턴제, 기업자체 인턴제의 경우 목표달성비율이 각각 48.0%, 46.6%, 56.8%를 나타냈지만 행정인턴제(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29.3%만이 자신의 취업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는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 일자리 편중으로 인한 취업목표설정이 취업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기는 하나 목표달성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려운 목표의 제공은 과제수행 양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과제수행 질은 증진시키지 못하거나 도리어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11] 와도 같은 결과이다.

취업교과목이 진로설정과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진로 및 취업교과목 참여가 취업 목표 달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교과목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취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목표수준이 높은 학생들도 있지만 필히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업교과목에 참여하는 흥미가 낮은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교과목의 운영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대학이나 교수의

기획 하에 일괄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취업교과목 운영에 있어 양적인 팽창보다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강의의 질을 높이고 학년별, 직무별 등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좀 더 세분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론 위주의 강의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직장환경을 미리 경험하여 직업기초능력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종별 취업정보를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토익점수가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토익위원회(2009)에 따르면 1000대 기업체용 시 93%가 토익성적을 활용한다고 발표하였다. 학생들 또한 토익을 공부하는 이유가 영어능력 측정보다는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토익점수를 향상시키고 싶어 하지만 쉽게 점수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익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점수를 향상시킨 학생들은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능력신념, 성취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20][21][22]. 토익점수는 점수자체가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토익을 대하는 이와 같은 인식을 이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목표설정유무는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목표설정이 취업준비행동을 유발하지만 이것이 곧 목표달성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목표설정의 중요성과 취업목표설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표설정에 있어 진로상담가들과 교수들은 정보제공과 더불어 개인상담을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과 직업정보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즉 취업목표의 구체성과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국가는 실제 기업과의 접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이 대기업이나 안정성 추구보다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취업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Analysis report of KEEP. 71~182. KRIVET. 2013.
- [2] Yuong-Ran, Yoon. "The study on the career recogni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Research*, 13(1), 123-168, 2007.
- [3] Kye-Young, Jang.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PH.D, Thesis, 2009.
- [4] Bong-whan,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Seoul University PH.D, Thesis, 1997.
- [5] Jung-Ae, Lee & Woong-Yong, Choi.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Career Actions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2), 685-699, 2010.
DOI: <http://dx.doi.org/10.15703/kjc.11.2.201006.685>
- [6] Loke, E.A. "Effects of knowledge of results, feedback in relation to standards, and goals on reaction-time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81, 566-574, 1968.
DOI: <http://dx.doi.org/10.2307/1421061>
- [7] Chang-Dae, Kim. "A Career Counseling Model Using 'Flow' Theor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0(1), 5-30, 2002.
- [8] Seung-goo, Lee & Je-Kyung, Lee.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3), 1-25, 2008.
- [9] Ford, M. E. *Motivating human; Goals, Emotions, and personal agency beliefs*. Newbury Park, CA; Sage. 1992.
DOI: <http://dx.doi.org/10.4135/9781483325361>
- [10] Byung-Suk, Kim. *Handbook of Occupational Psychology*, 135-167, Sigmappress, 2005.
- [11] Hye-Won, Kang. "Effects of goal setting and feedback on performance and motivation : Experimental approaches to improve educational achievement", Sookmyung Woman's University, PH.D, Thesis, 1994.
- [12] Ji-Hye, Choi.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Achievement Goals, Achievement Emotions,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Sookmyung Woman's University, PH.D, Thesis, 2013.
- [13] Hyun-Joo, Le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oal Importance, Performance Feedback,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on Self-Regulation: Colleges Students' Studying Time",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7(4), 829-852, 2013.
- [14] Je-Kyung, Le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and individual backgrounds", Seoul University PH.D, Thesis, 2004.
- [15] Eun-Jung, Kim.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Seoul University, MA. Thesis, 2011.
- [16] Yoon-Seo, Jo. "The Analysis of Job Preparation Activities by Work Valu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4),

1690-1698,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4.1690>

- [17] Ye-Jung,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Kyungsoong Univercity PH.D, Thesis, 2004.
- [18] Seung-goo, Lee. "The research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gola, Flow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The Occupation and Employment service research*, 6(2), 43-56, 2011.
- [19] Mee-Kyung Jung & Soo-Ran, Kim.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Goal Sett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relation of University's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nd Employment",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9(2), 123-144, 2013.
- [20] Youn-Joong, Kim. "The Influence of Personal Agency Beliefs of College Students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Kyungki University, MA. Thesis, .2013.
- [21] Mi-Young, Sin. "Aspects of Motivation and Self-efficacy Depending on Academic Performances in TOEIC", 55(4), 303-330, 2013.
- [22] Hee-Jung, Oh.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TOEIC achievement", *English Language Teaching*, 24(3), 299-319, 2012.
DOI: <http://dx.doi.org/10.17936/pkelt.2012.24.3.014>

김 윤 중(Kim Youn Joong)

[정회원]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취업지원관
- 2015년 3월 ~ 현재 : 경기대, 경민대, 동아방송예술대 출강

- 2015년 3월 ~ 현재 : 한국NCS연구소 이사

<관심분야>

직업심리, 직업정보, 노동경제, 행동경제, 직업기초능력